

페놀, 마그네슘 제련공장서 유출

연결배관 균열로 토양 침투 ... 150mg으로 기준치의 50배 초과

강릉 옥계단지 진입도로 교량의 교각 터파기 현장에서 배출돼 주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에서 페놀(Phenol)이 검출돼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6월2일 교각에서 나온 검붉은 오염수를 수거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페놀이 검출됐다고 6월27일 발표했다.

검출된 페놀은 리터당 150mg으로 가급 하천 기준 3mg보다 50배를 초과했으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리터당 250.6mg가 검출돼 기준 90mg을 크게 초과했다.

오염물질은 인근 포스코의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는 마그네슘 제련공장의 석탄가스 생산공정의 냉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연결배관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타르성분이 함유된 응축수가 토양에 침투해 외부 교각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각을 공사하던 관련기업은 유출수를 나무가 썩은 물로 판단해 주수천으로 퍼냈고 오염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는 동해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각에서 2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마그네슘 제련공장은 6월10일 <공장의 석탄가스 순환수 저장탱크와 배수관로 접합부의 균열로 말미암은 누수를 확인했다>는 오염신고서를 강릉시에 제출했다.

아직 정확한 토양 및 수질 오염범위와 배출된 오염수량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강릉시가 마그네슘 제련공장의 응축수를 검사한 결과, 페놀이 리터당 3812mg, 시안 14.8mg(기준 1mg/리터), 불소 151.91mg(기준 15mg/리터), 기름성분 111mg(기준 30mg/리터), COD 3만3265.5mg(기준 90mg/리터) 등이 검출돼 대부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로 스며든 오염물질로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범위를 정밀 조사한 뒤 흙 교체 등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7>